Market Index / 19일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유가(WTI, 달러)		환율(원)		살때	팔때		살때	팔때
▼	6471.17 -398.66	▼	824.46 -9.74	▲	84.06 +0.32		1USD 100￥	1423.27 894.27	1374.33 863.51	1EUR 1CNY	1654.32 217.91	1589.78 197.17

전입보다 많은 전출… 12분기 연속 인구 순유출

제주, 2분기 176명 순유출… 20·10대 중심 빠져나가
건설수주액 6920억으로 464% 증가 속 민간은 16%↓

제주지역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더 많은 순유출이 올해 2분기까지 12분기 연속 이어졌다. 또 2분기 건설수주액은 1년 전보다 400% 이상 증가했지만, 공공 부문의 조기 발주 영향이 컸고 민간 부문의 침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가데이터처 제주사무소의 '2분기 제주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입인구는 1만7714명, 전출인구는 1만7890명으로 176명이 순유출됐다. 1분기 순유출 인원인 1342명에 견주면 규모는 줄었지만, 2023년 3분기 이후 순유출은 12분기 연속 이어지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순유출이 27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대 107명, 70세 이상 85명이 순유출됐다.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모두 순유입을 기록했다. 40대에서 155명이 순유입됐고, 30대와 10세 미만은 각각 54명, 50대 28명, 60대 4명이 순유입됐다.

2분기 건설수주액은 6920억원으로 전년 동분기(1226억원) 대비 464.2% 증가했다. 토목공사가 6056억원으로 1567.7% 늘어난데다 전년 동분기에 70.6%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까지 더해진 영향이다. 건축공사는 전년 동분기(863억원)와 비슷한 864억원으로 나타났다. 발주자별로는 공공 부문이 6369억원으로 1016.1% 증가한 반면 민간 부문은 550억원으로 16.1% 감소했다.

침체된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상반기 공공기관이 공사를 조기 발주하면서 수주액 증가로 이어졌지만, 민간 부문은 여전히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분기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111.9로 전년 동분기 대비 3.0% 감소했다. 도소매(3.1%), 보건·사회복지(3.6%) 등은 증가했지만, 정보통신(-27.4%), 부동산(-13.9%), 운수·창고(-5.9%) 등은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소매판매액지수는 2.3% 증가한 101.3으로 나타났다. 전문소매점(6.5%), 슈퍼마켓·잡화점·편의점(7.7%)의 판매가 증가한 반면 승용차·연료소매점(-5.1%), 대형마트(-9.5%)의 판매는 감소했다.

광공업생산지수는 102.2로 1.9% 감소했다. 의약품(49.9%)과 식료품(3.7%) 생산은 증가한 반면 음료(-14.0%), 전자·통신(-56.3%), 고무·플라스틱(-23.0%) 등의 생산은 감소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국민이 뽑은 명소 1위 '성산일출봉'

문체부, 국민투표로 100개 주제별 여행 명소 선정
합산 득표 1위 성산일출봉… 단일주제 1위 성심당

성산일출봉이 국민 4만여 명이 직접 뽑은 대한민국 명소 가운데 최다 득표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사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대한민국 명소 발굴 100X100 프로젝트' 국민투표를 통해 100개 여행 주제별 명소 9883곳(중복 제외 6336곳)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결과는 '대한민국 구석구석'과 연계된 별도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7일까지 진행된 투표에는 국민 4만145명이 참여해 총 153만8035개 장소에 표를 던졌다.

100개 주제 가운데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주제는 '착한 가격 식당'이었다. 이어 '숨은 노포', '지금, 여기서만 제철음식', '전국 방방곡곡 빵지순례' 등 미식 관련 주제가 상위 10개 가운데 4개를 차지했다. '근현대 역사 명소', '한국의 전통시장' 등 역사·문화 주제와 '피톤치드 뿜뿜 힐링 숲', '배우고 즐기는 자연공원' 등 자연 주제도 나란히 상위권에 올라 여행의 즐거움을 특별한 소비보다 일상적인 만족에서 찾으려는 분위기가 드러났 다.

단일 주제(전국 방방곡곡 빵지순례)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명소는 대전 성심당이었다. 성산일출봉(제주 오름)은 7위, 비자림(피톤치드 뿜뿜 힐링 숲)은 10위를 차지했다.

여러 주제의 득표를 합산하면 성산일출봉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성산일출봉은 '일출과 일몰 포인트', '계단 끝까지 가보기' 등 22개 주제에서 고르게 표를 얻었다. 이어 국립중앙박물관, 경복궁, 동궁과 월지, 성심당, 순천만국가정원, 담양 죽녹원, 순천만습지,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전주한옥마을 순으로 합산 득표 상위 명소 10곳에 이름을 올렸다.

지역별로 전국 명소로 선정된 곳은 서울 1261곳, 경북 1088곳, 강원 1058곳, 전남·광주 1032곳, 제주 917곳 등으로 나타났다. 제주에서는 성산일출봉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관련 누리집에서는 주제별로 국민이 가장 많이 뽑은 명소를 순위별로 확인할 수 있다. 관심 지역이나 테마, 주제를 선택하면 관련 명소가 지도 위에 표시되고, 주제별 대표 명소를 먼저 보여줘 여행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 국민의 명소 조회 수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명소 순위를 주기적으로 갱신할 예정이다. 또 설·추석 연휴나 휴가철 등 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 국민의 관심을 받는 명소를 소개할 계획이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제주시농협, 우즈벡 수출
현지 슈퍼마켓 체인과 협약

제주시농협이 우즈베키스탄 최대 규모의 슈퍼마켓 체인인 까르징카, 성신엘앤피(주)와 손잡고 제주감귤 등 농산물의 현지 수출을 추진한다.

제주시농협은 지난 18일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까르징카, 성신엘앤피(주)와 제주산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3개 기관은 앞으로 ▷제주산 농산물의 우즈베키스탄 수출과 현지 유통 확대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까르징카는 1996년 첫 슈퍼마켓을 개점하며 우즈베키스탄의 현대식 유통시장을 개척한 현지 대표 유통기업이다. 현재 우즈베키스탄 12개 지역에서 25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며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제주시농협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까르징카의 현지 유통망을 활용해 우즈베키스탄 소비자들에게 제주산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려 인지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재일제주인 4세 래퍼의 '뿌리찾기' 여행

제주관광공사 프로젝트
'Jeju Roots & Beats'
가족 고향·4·3까지 담아

재일제주인 4세 래퍼가 제주 청년 크리에이터와 함께 자신의 가족사와 정체성의 흔적을 찾아 제주를 여행하는 특별한 프로젝트가 추진됐다.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15~17일 재일제주인 4세 힙합 아티스트와 제주 청년 크리에이터가 함께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Jeju Roots & Beats' 프로젝트를 추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제주에 뿌리를 둔 재일동포 4세 힙합 아티스트 'PM Kenobi'의 가족사에서 출발했다.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는 재일동포로서의 삶과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음악에 담아왔으며, 관련 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누적 조회 수 800만회 이상을 기록할 만큼 한·일 양국 MZ세대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제주에서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고 있는 재일제주인 4세 래퍼 PM Kenobi. 제주관광공사 제공

공사는 PM Kenobi의 개인적 서사에 주목해 '사람과 이야기'를 중심으로 제주를 알리는 콘텐츠를 기획했다.

PM Kenobi는 제주 로컬 크리에이터 '뭐랭하맨'과 함께 제주 우정 여행에 나서 제주 오합주 장인 김태자 어르신 댁에서 제주 집밥을 맛보고 동문시장을 둘러보는 등 일상을 체험했다. 축구를 좋아하는 PM Kenobi를 위해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제주SK FC 경기를 관람하고, 사계 해안과 탑동 일대에서 제주의 여름 풍경도 즐겼다.

특히 가족의 뿌리가 닿아 있는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바닷가를 걸으며 가족사를 되짚고, 너븐숭이기념관과 제주4·3평화공원을 찾아 제주의 역사와 재일제주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여정은 각자의 시선으로 콘텐츠화된다. PM Kenobi는 제주를 배경으로 한 뮤직비디오를, 뭐랭하맨은 두 청년의 만남과 우정 여행을 담은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다.

문미숙기자

24시간 상담/히트브랜드 대상 수상
보청기 고객감사 특별할인!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삼촌들 혼저 전화 주십서! 기다렴수다!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향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 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서사라 사거리 북동쪽
시청방면 1층 삼겹구이 서광로 225 2층
서사라 사거리 제주시버스터미널 그랜드보청기

삼육두유
우리가족 건강음료, 삼육두유
설탕을 넣지 않고 고소하고 부드러운 콩 그대로의 맛을 살린 절대 모방할수 없는 맛

삼육식품 www.sahmyook.co.kr
Sahm yook
제주도총판 대표 윤 봉실
064)757-1416

써니트묘목분양
★만감류 - 써니트 - 한라봉 2년 - 카라 2년
- 달콤, 미래향, 레드스타, 우리향, 맛나봉

'써니트'묘목 불법 유통 금지 안내
■ '써니트'(품종보호 제6039호)는 「한라종묘」에서 품종보호권자 현성익(서귀포시 상효동)으로부터 2041년까지 전용실시권을 받은 품종입니다.
■ 이에 따라, 타 업체에서는 묘목을 생산·판매 할 수 없고, 농가에서도 써니트 접순을 불법 채취해서 자가묘목, 고접, 접순 나눔 행위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한 종자업체 또는 농가에서는 저희 「한라종묘」로 연락을 주시면, 협의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불법 유통이 확인될 때에는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 다이마사키, 레드한라봉, 홍한라봉, 붉은한라봉 등은 (품종명이 아님) 생판신고, 안된 품종이며, 후에 써니트로 밝혀지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유통한 묘목으로 생산된 과일은 써니트란 이름으로 유통을 못합니다. (적발시 농가나 유통업자나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유통 조치 현황 · 농가 : 42 농가 · 업체 : 3개 업체
한 라 종 묘
종자업 등록번호 : 제18-서귀포-2005-20-01호
농장주소 :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000-3, 연락처 : 010-3696-2057

감귤 신품종 분양
2027년 공급분 품종안내
만감류
우리향, 달코미, 맛나봉, 레드스타, 설향, 미래향, 사라향, 한라봉, 아나마스, 레몬, 탐나는봉
온 주
궁천, 유라조생, 하례조생, 흥진조생, 고림, 오하라베니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큰도로변)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대 표 : 010-2691-1883